



제목	루미의 우화 모음집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이집미술
발행일	2010. 3. 10.
저자	Rumi 지음 아서 솔리 엮음 이현주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200
ISBN 또는 ISSN	978-8964291009

내용 요약

『루미의 우화 모음집』은 페르시아 수피즘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의 우화를 모아 엮은 책이다. 아서 솔리는 이슬람 문학작품의 정수이자 루미의 방대한 서사시 모음집인 『마스나위』에서 57편의 이야기를 골라 11가지 주제로 나누어 엮었는데, 책을 펼치자마자 ‘라일리’와 ‘마즈nun’ 이야기가 나온다. “그대 [라일리가 내 [칼리프] 친구 마즈nun으로 하여금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잃게 만든 그 미모의 라일리라고? 이해할 수 없군. 내 눈에는 다른 여자와 별로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용모인데?” 라일 리가 대꾸했다. “하지만 당신은 마즈nun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풍자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엮은이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칼리프오 마즈 nun, 라일 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11개의 주제는 경험으로 배우는 것, 관용과 선물, 피로 해결한 어려움, 피할 수 없는 운명, 지혜와 상식, 어리석음, 순간의 재치와 앞선 생각, 현명한 판단, 겸손한 자의 지혜, 드러난 사기, 손님 접대로 분류된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는 어리석은 마술사, 예절 바른 낙타, 야망에 찬 개미, 교만한 사자를 농락하는 토끼, 앵무새, 어 리석은 군주와 슬기로운 군주, 착한하인과 못된 하인 등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신성한 경구와 수수께끼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그리고 이 책의 엮은이는 독자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킨다. “여기 약간 각색된 형태로 수록된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들은 루미의 심오한 작품 세계에 매력을 느껴 한 걸음 들어가 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 한입에 마구 삼키지는 말기 바란다.”